



스포츠동아는 설을 맞이해 '설날 하면 떠오르는 축구스타는?'이라는 주제로 18일 오전부터 한 하루 동안 트위터 설문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축구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수많은 멘션이 달렸다. 특히 10대와 20대 여성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직접 애정을 표출하는 '구애형'부터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관찰형'까지 특특 튀는 답변들이 쏟아져 나왔다.



설 명절 함께 보내고 싶은 선수는?

"24일 기성용 생일 챙겨줄거야" 애능 기 념치는 홍정호 뒤이어



세벳돈 많이 받을 것 같은 선수는?

곱상한 외모의 막내 손흥민 1등 제대 첫 설 맞는 김정우 뽑기도



집안일 잘 도와줄 것 같은 선수는?

차두리·구자철·이동국 3파전 자상함·부지런한 이미지 매력



원철한 키와 잘 생긴 외모. 스포츠동아 트위터 설문 결과 '같이 설을 보내고 싶은 선수'로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이 뽑혔다.

스포츠동아DB

설 함께 보내고 싶은 선수 1위, 기성용

●설을 함께 보내고 싶은 선수는?

같이 설을 보내고 싶은 선수에는 최근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기성용(셀틱·23)이 압도적이었다. @yujin0911은 "잘 생기고 축구도 잘하고 멋있어서 좋아하는 선수"라고 했고, @hyejin7425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기성용의 생일(1월 24일)을 챙겨주고 싶다고 했다.

홍정호(제주·23)의 인기도 높았다. 지난 해 연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던 홍정호는 @YSunny_1226을 비롯한 수많은 팬들에게 "나만을 위한 세레나데"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김주영(경남·24)을 꼽은 @JBY_by는 "재미있는 입담으로 같이 있으면 심

심하지 않을 것(@JBY_by)"이라 말했다. @BW_DUBU는 이근호(울산·27)에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 눈길을 끌었다.

●세벳돈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선수는?

대결은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손흥민(함부르크·20)의 압승이었다. 약관의 나이가 부각된 듯하다. @jiyeon1208은 "손흥민이 대표팀의 막내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손흥민의 곱상한 외모도 큰 역할을 했는데, @Seun9825는 "생글생글 잘 웃고 어려서, 세벳돈을 다 받을 것 같다"고 전했다. @ji491은 임상현(부산·24)의 잘 생긴 외모가 세벳돈을 불러온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색적인 답변은 홍철(성남·22)과 김정우(전북·30)에게서 나왔다. 홍철을 꼽은 @kjwon258은 "세벳돈을 안 주면 줄 때까지 쫓아다닐 거 같아서"라고 말했다. 끈질긴 투지를 높이 산 것이다. 김정우를 꼽은 답변은 "뭔가 자꾸 주고 싶은 몸매(@jhm_jy93)"와 "제대하고 첫 설을 맞이해서(@envie23)"라는 답변이 웃음을 자아냈다.

●집안일 잘 도와줄 것 같은 선수는?

치열한 3파전 양상이었다. 주인공은 차두리(셀틱·32), 구자철(볼프스부르크·23), 이동국(전북·33)이다. 차두리는 자신의 생활사를 트위터에 공개하고 팬들과 소통한다. @santafz는 "트윗만 봐

도 집안일 잘 할 듯"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간이 튼튼해 집안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재밌는 의견도 있었다. 구자철은 착하고 부지런함의 대명사가 된 듯하다. @justice0527은 구자철의 반듯한 모습을 꼽았고, @KL619는 "구자철이 효자라고 들었다"면서 평소 품행을 높이 샀다. 이동국은 최근 출연한 1박2일의 친근한 모습이 반영된 듯 자상하다는 표현이 다수를 차지했다. @89_05_11은 "이동국은 집안일 잘 도와줄 것 같은 자상한 모습이어서"라고 대답했다. @babe_JH는 "조영철(오미야·23)이 종종 어머니와 장도 보고, 식사하는 모습도 봤다"면서 목격담을 전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박지성 vs 박주영...설설 끊는 밤

설날 맨유-아스널 빅매치 출격 대기 양리 부상으로 박주영 출전 가능성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양박' 박지성(31·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박주영(26·아스널)이 설 연휴 때 맞대결을 벌인다. 상상만 해도 호뭇하다. 국내 팬들에게 '꿈의 대결'로 불릴만한 매치 업이 성사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아스널은 설 당일인 23일 오전 1시(한국시간) 런던 에리미즈 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 문제는 박지성과 박주영의 출전 여부다. 일단 박지성은 가능성이 높다. 15일

볼턴과의 경기에서 후반 25분 교체 출전하며 체력을 비축했다. 더구나 박지성은 아스널 킬러다. 프리미어리그 진출 후 아스널을 상대로만 6골을 넣었다. 아스널 웨거 감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다. 박주영은 불투명하다. 작년 11월29일 맨체스터 시티와 칼링 컵 이후 아직까지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리그 데뷔전조차 아직 못 치렀다. 박주영은 프로 데뷔 후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만 호재가 생겼다면 단기임대로 은 양리가 부상 당했다는 점이다. 양리는 최근 훈련하다가 종아리를 다쳐 맨유전 출전이 불투명하다.

윤택재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 @Bergkamp08



박지성



박주영

손해보험의 심장 제2012-48호 (2012.1.2)

적게 탈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ERGO로 오라!

미일리지 자동차보험(특약) 출시

친화도 보험료만 낮아도 트렁크정리함이 무료요?

1, 2월에 보험이 만기라면 ERGO에 전화만 해보세요

▶기간: 2012년 1월 31일까지 (매일 신청은 2012년 1월 31일까지)

일부제한된 전화 번호 **1544-1666** ERGO |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비수술적 음경확대!!

라이펜 (LIPEN) 을 이용한 음경확대!!

- * 국내 최초로 KFDA 승인을 받은 라이펜 (LIPEN)을 이용한 비수술적 확대술입니다.
- * 동시에 조루증에도 일부 효과가 있는 시술법입니다.
- * 주사 시술로 당일부터 일상생활과 샤워가 가능하고 성관계 일주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 *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귀두 확대도 가능하며 귀두확대의 경우 준비도를 이용한 확대술입니다.
- * 부작용으로는 알려지나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로점)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 (강남점)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근 원장

늘푸른비뇨기과의원

종로점 02) 2272-5588, 강남점 02) 3469-19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10110-중-20645호 www.egclinic.co.kr

발기콜, 오르가즘콜

▶ 발기원리- 병원에서 성기속으로 붓입플라트하는 것과 같은 원리고, 발기콜은 성기귀두와 몸통일부분은 안 덮여지고, 고힘쪽 성기 몸통 일부분에 콘돔토시를 끼우고, 토시속으로 붓입플라트가 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80대, 성기확대자, 조루증 환자, 완전발기불능자도 즉시 발기되고 통증 없고 감각 좋고 길어지고 오르가즘에 오를 때까지 사정해도 시들지 않고 4시간 발기가 지속되어 아내의 불면증, 우울증, 잦은 발기, 의부증, 의처증 없어진다.

▶ 즉시 발기 안되고 조루증 안 없어지면 환불 보장.

▶ 링, 반지, 오리링, 성기혈류추진기(펌프)처럼 성기목을 아프게 조이고 성기혈액을 즉시시켜서 영원한 발기불능자로 만드는 제품 아니다.

▶ 끊는 물에 녹는 가짜실리콘 발기콘돔은 독성과 발암물질 때문에 성기와 자궁에 질병과 암발병을 유발시키므로 사용하면 남, 녀 모두 해가된다.

▶ 발기콜은 끊는 물에 소독하는 진짜 실리콘 제품이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특허품 (반영구적)

* 발기약 안먹고 즉시 발기된다.

* 표시나지 않고, 자연발기와 똑같아서 아내도 속는다.

010-9607-9970, 010-2762-2540, 070-8243-9970

입금 : 농협 351-0180-1510-63 구인숙